

작품 개요

「아! 가을인가」는 나운영이 중앙중학교 3학년인 1936년(15세)에 김수향(金水鄉)의 시에 곡을 붙인 첫 작품으로, 1947년 5월에 발행된 중등음악교본(국민음악연구회 발행)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진 곡이다.

작품에 얽힌 이야기 첫번째

「아! 가을인가」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서점에서 「아! 가을인가」가 출판된 악보들을 보면 어떤 악보는 작사자가 김수향으로, 또 어떤 악보는 김수경 또는 나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운영의 자필 악보를 보면 작사자가 김수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는 분단된 나라의 아픈 사연이 함께 한다.

김수향(金水鄉)은 윤복진(尹福鎭, 1908~1991)의 예명藝名으로서, 윤복진은 월북하여 북한에서 활동한 아동문학가였다. 종전終戰 이후 월북작가의 작품은 방송이나 출판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 가을인가」는 월북작가 윤복진이 아니라 김수향 작사로 되어 있었으므로 한동안 아무 탈 없이 음악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 가을인가」의 작사자가 동일인인 것이 드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나운영은 꾀를 내어 김수향(金水鄉)을 김수경(金水卿)으로 바꾸어 제출한다. 얼핏 한문만 보면 향(鄉)과 경(卿)이 같은 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므로 이렇게라도 작품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무사히 넘어가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날 이것을 또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운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아! 가을인가」가 묻혀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직접 개사를 하기로 마음 먹고 원래 가사의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봐’ 만 살리고 아랫단을 1,2절로 나누어 나운영이 직접 작사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 가을인가」의 작사자가 김수향, 김수경, 나운영으로 발표되었는데, 앞으로는 윤복진으로 바뀌어야 맞을 것 같다.

지금이야 월북작가의 작품들이 모두 해금解禁되어 아무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이런 말 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았다.

〈김수향 시〉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봐
물통에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 길는 아가씨 고개 숙이지

〈나운영 개사〉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봐
1. 둥근 달이 고요히 창을 비추면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봐
2. 가랑잎이 우수수 떨어지며는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봐

작품에 얽힌 이야기 두번째

「아! 가을인가」악보 원본을 보면 우선 ‘1936년 습작’ 이라고 부제를 붙인 것이 눈에 띈다. 나운영은 습작^{習作}이나 다름없었던 이 곡이 이렇게 계속 사랑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악보 위에 하모니카를 불기 위한 숫자 악보가 눈에 띈다. 나운영은 어릴때부터 하모니카를 아주 잘 불어 김생봉(金生峰)선생이 지휘하는 〈알파 하모니카 밴드 제2회 연주회〉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작품에 얽힌 이야기 세번째

「아! 가을인가」의 전주를 보면 분명히 두번째 마디 4번째 음이 ‘C’로 적혀 있는데, 음악회장에서 연주할때 들어보면 대부분 이 음을 ‘D’로 연주하고 있다. 이 곡이 출판될 때 실수로 잘못 인쇄된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듯 한데,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